캐리커처로 본 광주·전남 인물 100人

광주일보 김종두 화백 등 시사만화가들 전시회

기발한 필치로 표정·몸짓 담아…10~20일 광주시청

'빤돌이'(천백원 화백·1954년) '미나리 여사'(이홍우·1973~1980년·이상 광주일보 전신 '전남일보' 만화) '나원참'(1983~·김종두·광주일보). 광주일보의 시사만화와 만평은 지난 50년 동안 지역민들의 눈물과 웃음을 대변해온 '그림마당'이다.

6·25전쟁의 폐허 속에서 별다른 볼거리가 없던 지역민에게 만화 '빤돌이'는 배고픔을 잊고 희망의 싹을 키워나갈 수 있게 했고, '미나리 여사'는 5월의 아픔을 달래주었다.

또 '나원참'은 손바닥으로 가려질 만큼 작은 지면이지만 가만히 있어도 주머니를 뚫고 비어져 나오는 세상을 위한 '송곳' 같은 해학을 전해주고 있다.

한국에 만화가 전해진지 100년 되는 해를 맞아 광주·전남시사만화가회(회장 김종두)는 오는 10~20일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광주·전남 오피니언리더 100인 캐리커처'전을 연다. 한국 최초의 만화는 지난 1909년 대한민보에 실린 이도영의 만평이다.

이번 전시에는 김종두, 유순식(광주매일), 정설(전 전남일보), 장승택(순천대 애니메이션 학과 교수·전 무등일보), 김일환(광주드림), 김복룡(전 남도일보), 조득필(광남일보)씨 등 시사만화가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이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 100명을 선정해 기발한 필치로 이들 인물의 독특한 표정과 몸짓을 담아낸 캐리커처 작품을 선보인다.

사진작가 강봉규, 김경진 변호사, 김용복 영동농장 창업자, 문병란 시인, 박흥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서정성 아이안과 원장, 송기진 광주은행장, 안종일 광주·전남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 회장, 안창호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황영성 화가, 김주훈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이종범 KIA타이거즈 선수 등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델로 나섰다.

또 이들 오피니언 리더들의 약력과 활동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글을 캐리커처 작품과 함께 전시해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는다.

이 밖에 전시 기간 동안 쌀을 기부받아 기부자의 이름이 적힌 노란 리본을 매달아 전시가 끝난 뒤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나눔 행사도 곁들여진다.

김종두 회장은 "시사만화는 진실을 독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언론의 꽃'이다"면서 "캐리커처는 단 한 컷에 그 사람의 성격과 스타일 등을 담아내야 하기 때문에 시사만화가들의 예리한 관찰과 표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정설 작 '바람의 아들-이종범'

광주 아버지들의 합창, 들어보실래요

14번째 정기연주회…내일 밤 문예회관

광주아버지합창단(단장 김해성) 제 14회 정기연주회가 8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아버지합창단을 이날 성가, 동요, 가곡, 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준다. 레퍼토리는 '그대 떠난 빈들에 서서' '한계령' '에레스 투' '아름다운 금강산' '주님 오실 하늘 바라보며' 등이다.

이날 공연에는 KBS광주방송 어린이합창단, 서구여성합창단, 소프라노 임현진씨가 특별출연하며 지휘는 박호진씨, 피아노 반주는 정현미씨가 맡았다.

아버지합창단이 창단 된 건 IMF 직후인 지난 1998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따뜻한 마음을 서로 나누기 위해 지역의 아버지들의 의기투합해 창단했다.

정기연주회 뿐 아니라 불우이웃돕기 자선음악회, 어르신들을 위한 음악회 등을 통해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매주 한차례(월 오후8시~10시)씩 정기연습을 갖는다. 문의 010-5610-532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모차르트 소나타' 앙코르 무대

박다연·구재향씨 오늘 드맹아트홀

지난해 12월 바이올리니스트 박다연(광주시립교향악단원·사진 오른쪽)씨와 피아니스트 구재향씨는 'The Dream'이라는 이름으로 대장정에 나섰다.

지역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타나 16곡 전곡을 연주회였다. 모두 4회에 걸쳐 연주회를 진행, 전곡 연주회 '모차르트의 편지'를 마친 두 사람은 7일 오후 7시30분 드맹아트홀에서 앙코르 연주회를 마련했다.

4차례 연주회 가운데 가장 인기가 많았던 4개의 소나타를 골랐고, 음악팬들을 초청했다.

연주 레퍼토리는 '바이올린 소나타 G.장조 K.301' 'A장조 K.526', 유일한 단조곡인 'E단조 K.304' 등 각기 다른 성격의 소나타 작품이다.

앞으로도 그들의 '꿈'은 계속된다. 2010년 각각 독주회를 준비하고 있는 두 사람은 내년 9월부터는 3회에 걸쳐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10곡 전곡을 연주하는 두번째 시리즈를 시작한다. 이후에는 프로코피에프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문의 062-650-156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위한 변명

"나가자, 조국의 아이들이여/ 영광의 날이 왔도다/ 우리들 앞에/ 폭정의 피묻은 깃발이 서 있다/ 들리는가, 저 흉포한 군사들의 사나운 소리가/ 그들은 우리의 품안에까지 쳐들어와/ 우리 아이들과 아내의 목을 베고/ 우리 밭을 유린할 것이다/ 무기를 들어라 시민들이여/ 나아가자!/ 놈들의 더러운 피로/ 우리 밭고랑을 적시자."('라 마르세예즈' 1절)

1792년 4월20일 프랑스는 혁명에 간섭하는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에 선전포고를 했다. 닷새 후인 4월 25일 선전포고령을 지니고 파리를 떠난 전령이 스트라스부르시에 도착했다. 라인강을 사이에 둔 프랑스군과 프로이센군은 일촉즉발 상태였다. 그날 밤 스트라스부르시장 프레데리크 디트리슈는 공병 대위 루제 드릴을 찾아와 이튿날 적진을 향해 떠날 프랑스 군대를 위해 군가를 지어달라고 부탁했다. 대위는 밤을 새워가며 혁명가요를 만들었다. 바로 '라 마르세예즈'다. 이 노래가 '라 마르세예즈'(마르세이유 군대의 노래)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석달쯤 뒤였다. 그해 7월2일 마르세이유를 출발한 500명의 지원병이 이 노래를 부르며 파리교외를 지나갔다. 군인들의 출전을 보기 위해 거리로 나온 파리 시민들은 처음 들어보는 힘찬 멜로디에 감동돼 이 노래를 '라 마르세예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 뒤 이 노래는 프랑스군과 함께 유럽 구석구석을 누비며 혁명의 이상을 뿌렸다.

라 마르세예즈는 1795년 7월14일 프랑스 공화국의 국가로 선포됐다. 하지만 혁명과 공화국의 이념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나폴레옹 제정시대, 제3제정시대에는 금지곡으로 묶였다. 제3공화국 시절인 1879년 다시 햇볕을 본 라 마르세예즈는 현재까지 프랑스 국가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그동안 5·18 기념행사에서 추모곡으로 애창됐던 '임을 위한 행진곡'이 5월 기념곡의 자리를 내줘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최근 국가보훈처가 내년 광주 민주화운동 30주년을 맞아 국민공모를 통해 새로운 '오월의 노래'(가칭)를 제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당시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동하다 숨진 윤상원과 그 한해 전인 1979년 세상을 떠난 노동자 박기순의 영혼 결혼식을 다룬 '빛의 결혼식'의 한 부분이다. 문화운동가 김종률씨가 이 영혼결혼식에서 모티브를 얻어 작곡했고, 가사는 백기완의 시 '묏비나리'에서 따왔다.

보훈처는 국가기념일의 공식 기념곡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지만, 그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월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노조행사때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포함된 민중의례를 금지한 전력이 있어서다. 일각에선 반정부 시위현장에 울려 퍼졌던 운동가를 대통령이 따라 불러야 하는 곤혹스러운 속사정에서 나온 궁여지책이라는 분석도 있다.

'라 마르세예즈'가 원색적이고 호전적인 가사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국가로 애창되는 것은 노래가 지닌 역사성이다. 시민과 군인들의 희생으로 얻은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그 어떤 노래 보다도 가장 생생하게 담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5·18 기념곡이 '임을 위한 행진곡'의 역사성과 대중성을 얼마나 담보해낼지 지켜볼 일이다.

/문화생활부장·jhpark@kwangju.co.kr